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수 미¹⁾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조 경 자²⁾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 혜 리³⁾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8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정서지능 척도, 대인관계 척도,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 t 검증,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결과,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정서지능의 동기화와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정서조절, 정서인식, 동기화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지능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없었고 공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 정서지능, 대인관계, 삶의 만족

1)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E-mail : graceysm@chungbuk.ac.kr)

2)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책임연구원

3)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들과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서 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즉,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을 정서능력(emotional competence)이라고 한다(Saarni, 1990, 1999).

정서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한 가지가 정서지능(EI, 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는 1990년 Salovey와 May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95년 과학부 신문기자인 Goleman이 정서지능에 대한 학문적 저서들을 참조하여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대중적인 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시사 주간지 Time 지가 표지에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 EQ)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지능 개념이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심리학 내에서 정서지능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정의됨과 동시에 정서지능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들이 등장하고 과학적 연구가 수행된 것은 1998년 이후이다(Ciarrochi, Forgas, & Mayer, 2001).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속성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정서지능에 정서와 관련된 적응적인 성격 특성이나 재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Bar-On, 1997; Goleman, 1995, 1998)이 있는 반면, 정서정보의 지각, 이해, 기억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Mayer, Caruso, & Salovey, 2000; Salovey & Mayer, 1990)도 있다.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0)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이러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제안한 개념이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였다.

Goleman(1995)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적응이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정서가 인지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지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능검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의 약 80%를 정서지능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mpos, Mumme, Kermorian와 Campos (1994)도 정서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인간관계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왕정희, 2000).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과 효과적이고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회적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O'malley, 1977).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을 다룬 대부분의 외국 선행 연구들은 낮은 정서지능이 일탈 행동, 흡연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Brackett & Mayer, 2003; Rubin, 1999; Trinidad & Johnson, 2001), 높은 정서지능은 친 사회적 행동, 부모의 온정, 긍정적인 동료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Rice, 1999; 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1).

Lopes, Salovey와 Straus(200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성격 특질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정서지능과 성격특질 모두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ckett, Mayer와 Warner(2004)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Big five 성격 특질 검사 그리고 생활 공간 척도(life space scale)를 사용하여 정서지능과 일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지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여자 대학생의 경우보다 생물학적인 조건, 환경적 요인, 상호작용 상황, 협동 상황과 같은 삶의 영역들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지능은 남자 대학생들의 부적응 행동과 부정적 행동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tte, Malouff, Bobik, Coston, Greeson, Jedlicka, Rhodes, 그리고 Wendorff(2001)는 남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대인 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정서지능

이 높은 사람이 자기 감찰을 더 잘 하고, 더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 점수도 높으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정애(1998)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 지명도와 학교 적응 수준이 높고 교사와의 관계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숙과 왕정희(2001)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지능은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능력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능력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정서조절, 정서표현, 정서인식으로 이 요인들이 사회적 능력에 대하여 4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숙과 왕정희는 이러한 결과가 정서지능이 타인의 기분을 인식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 할 줄 아는 인간관계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연지와 정종진(2005)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삶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Goleman(1995)은 지능지수가 삶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20% 미만이며, 오히려 잘 개발

된 정서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 높은 정서지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며, 행복,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망 등에 영향을 미친다(Austin, Farrelly, Black, & Moore, 2007). 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스트레스가 낮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데 노련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하다(Bar-On, 1997; Salovey, 2001).

Furnham과 Petrides(2003)는 정서지능과 행복감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88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행복감, 성격, 인지능력을 측정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질 정서지능과 행복감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특질 정서지능이 행복감의 가장 강력한 예언 요인으로 행복감의 50% 이상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행복감의 많은 변인이 정서 조절,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능력과 같은 정서의 인식, 정서적 성향들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Day, Therrien과 Carroll(2005)도 특질 정서지능과 성격의 다섯 요인(Big five 성격 요인), A형 행동양식, 일상생활 스트레스(Daily Hassles), 심리적 건강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A형 행동양식 그리고 성격을 통제한 후에도 정서능력은 높은 수준의 안녕감(Well-being)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심리적 건강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서지능이 더 나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며 일과 삶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정서능력을 삶의 만족도와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보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하여 살펴본 류진숙과 현은민의 연구(2006)는 일반청소년 집단의 정서지능 평균이 비행청소년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정서능력이 높은 청소년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진숙과 현은민은 이러한 결과가 정서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정서인식과 표현, 공감, 사고촉진 등 정서능력을 발휘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선옥(200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적극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또한 소극적 대처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성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일상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본 Brackett 등(2004)의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정서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지능과 정서/ 비정서 정보처리과정의 수행을 비교한 Austin(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지능 및 정서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정서능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정서능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정서능력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 정서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Campos, Mumme, Kermorian, & Campos, 1994; Brackett, & Mayer, 2003; Rubin, 1999; Trinidad & Johnson, 2001; Mayer, Caruso, & Salovey 1999; Rice, 1999; 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1; Lopes, Salovey, & Straus, 2003; Brackett, Mayer, & Warner, 2004; 장정애, 1998; 심혜숙, 왕정희, 2001; 김연지, 정종진, 2005; 류진숙, 현은민, 2006),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주로 정서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또 본인이 직접 평정하는 자기보고방식 혹은 관찰자가 평정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지능을 측정하고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과 함께 대학생들은 진학 위주의 교육 환경을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대인관계와 자율적인 대학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족 관계를 넘어 교우 및 선후배 관계와 이성교제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서지능이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적응 및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지능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서지능 연구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지능을 측정하였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정서지능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성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청주에 소재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7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의 전공과 학년은 사회대, 경영대, 생활과학대 외 5개 단과대학 25개 이상의 학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였다. 전체 응답자 중 3명이 설문지의 일부 응답을 누락하여 16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만18세 6개월에서 25세

8개월이며, 남자 대학생 71명, 여자 대학생 97명이 참가하였다.

2. 측정도구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정서능력 척도는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3영역 10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7)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정서능력 척도(5영역 47문항) 중 대인관계기술 영역을 제외한 네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기술의 문항들은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특정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함으로써 정서의 활용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개념들과 정서지능 개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개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대인관계기술 영역을 제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하위 영역은 정서인식, 동기화, 공감, 정서조절로 구성하였다.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동기화는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 방식의 검사이다, 검사 문항 간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가 높아진 문항들(정서인식 3문항, 동기화 4문항)을

제외하였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는 해당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보다 높아지는 경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므로 그 문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한다(성태제,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인식 5문항, 동기화 3문항, 공감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 총 3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 능력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정서인식의 Cronbach α 는 .88, 동기화 .70, 공감 .72, 정서조절 .87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변화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대인관계변화 척도는 Schlein, Guemey 그리고 Stover(1971)가 개발한 척도를 문선모(1980)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전석균(1994)이 수정한 것으로, 7개 하위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영역으로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이 있다. 만족감 영역은 인간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측정하며, 의사소통 영역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도를, 신뢰감 영역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정도를, 친근감 영역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친근 정도를 측정한다. 민감성 영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 정도를, 개방성 영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표현이나 개방성 정도를, 이해성 영역은 나 자신

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검사 문항들의 문항내적신뢰도 분석을 통해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문항(만족감 영역 1문항, 개방성 영역 1문항, 신뢰감 영역 2문항)을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신뢰도 영역은 3문항 중 2문항이 제외되고, 전석균(1994)의 연구에서도 신뢰감 영역의 신뢰도가 .38로 낮게 나타나 신뢰도 영역을 검사에서 제외하고 6개 하위 영역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20문항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만족감의 Cronbach α 는 .63, 의사소통 .67, 친근감 .53, 민감성 .54, 개방성 .70, 이해성 .7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는 양옥경(1996)이 제작한 삶의 만족 척도(10영역 33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중 삶의 매우 기본적인 물질적인 영역과 관련된 영역의 문항들(예: 당신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요즘 신체건강 상태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현재 한 달 수입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합니까?)을 제외하고 친구관계 영역 4문항, 대인관계 영역 2문항, 행복감 영역 3문항,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3문항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영역은 사귀는 친구의 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대인관계 영역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감 영역은 현재의 삶과 삶에서 얻는 기쁨을, 자

율성 및 자아감 영역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과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거의 혹은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문항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친구관계의 Cronbach α 는 .78, 대인관계 .85, 행복감 .88, 자율성 및 자아감 .6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학 과목 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참가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되면 바로 회수하는 집단 배포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설문지 작성 시 평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1.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척도에 사용된 문항 수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 능력 척도, 대인관계 변화 척도, 삶의 만족 척도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정서지능, 대인관계, 삶의 만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능력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대인관계변화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대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r=.56, p<.01$).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이 대인관계 점수도 높았다.

정서지능은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r=.49, p<.01$) 및 이해성($r=.49,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와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을 보면, 동기화에서 가장 높은 상관($r=.48, p<.01$)이 나타났다. 정서능력의 하위 영역과 대인관계변화 하위 영역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든 하위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동기화와 의사소통($r=.45, p<.01$)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과 의사소통($r=.15, p<.05$)에서 가장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공감은 개방성 및 이해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넣어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전체 결과를 보면, 동기화가 대인관계를 모형 1에서 23% 설명했고, 정서조절이 추가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10% 증가하여 33%를 설명하였다($\Delta R^2=.10, p<.001$). 남학생의 경우, 동기화가 대인관계를 모형 1에서 26% 설명하였고, 정서조절이 추가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5% 증가하여 31%를 설명하였다

표 1. 정서능력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N=168)

정서지능	대인 관계 변화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체
정서인식	.18*	.31**	.19*	.20**	.29**	.34**	.33**
동기화	.24**	.45**	.29**	.41**	.35**	.44**	.48**
공감	.16*	.15*	.35**	.16*	.15	.14	.24**
정서조절	.39**	.39**	.42**	.20**	.33**	.38**	.45**
전체	.36**	.49**	.46**	.36**	.42**	.49**	.56**

* $p < .05$ ** $p < .01$

표 2. 대인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B	β	R^2	F
전체	모형 1	동기화	.41	.48	.23	49.19***
	모형 2	동기화	.32	.38	.33	40.82***
		정서조절	.31	.34		
남자	모형 1	동기화	.42	.51	.26	23.62***
	모형 2	동기화	.37	.45	.31	15.24***
		정서조절	.21	.24		
여자	모형 1	정서조절	.99	.84	.27	35.69***
	모형 2	정서조절	.41	.41	.36	26.91***
		정서인식	.27	.32		
	모형 2	정서조절	.36	.37		
		정서인식	.19	.23	.40	20.49***
	모형 2	동기화	.19	.22		

* $p < .05$ ** $p < .01$ *** $p < .001$

($\Delta R^2 = .05$, $p < .05$). 여학생의 경우,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를 모형 1에서 27% 설명했고, 정서인식이 추가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9% 증가하여 36% 설명하였으며($\Delta R^2 = .09$, $p < .001$), 동기화가 추가된 모형 3에서 40%를 설명하였다($\Delta R^2 = .03$, $p < .05$).

2.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도

정서능력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능력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능은 삶의

표 3. 정서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N=168)

정서지능	삶의 만족도				
	친구관계	대인관계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	전체
정서인식	.29**	.27**	.24**	.31**	.33**
동기화	.26**	.26**	.20**	.37**	.32**
공감	.09	.22**	.15*	.09	.17*
정서조절	.30**	.32**	.43**	.36**	.43**
전체	.35**	.40**	.38**	.42**	.46**

* $p < .05$ ** $p < .01$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46$, $p<.01$).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이 삶의 만족도 점수도 높았다.

또한 정서지능은 삶의 만족 하위요인 중 자율성 및 자아감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r=.42$, $p<.01$). 삶의 만족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r=.43$, $p<.01$).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 변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공감과 친구관계, 공감과 자율성 및 자아감을 제외한 하위영역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정서조절이 행복감($r = .43$, $p < .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공감과 행복감과의 상관이 가장 낮았다($r=.15$, $p<.05$).

다음으로 정서지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전체 결과를 보면, 정서조절이 삶

의 만족을 모형 1에서 18% 설명했고 정서인식이 추가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5% 증가하며 23% 설명하였으며($\Delta R^2 = .05$, $p < .01$) 동기화가 추가된 모형 3에서 설명력이 2% 증가하여 25% 설명했다($\Delta R^2 = .02$, $p < .05$). 남학생의 경우, 동기화가 삶의 만족을 모형 1에서 18% 설명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정서조절이 삶의 만족을 모형 1에서 24% 설명했고, 정서인식이 추가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4% 증가하여 28% 설명하였다($\Delta R^2 = .04$, $p < .05$).

3. 정서지능과 성별

대학생의 정서지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점수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남녀의 정서지능 평균 점수와 각 하위요인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지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삶의 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B	β	R^2	F
전체	모형1	정서조절	.51	.43	.18	36.50***
	모형2	정서조절	.43	.36	.23	24.56***
		정서인식	.23	.23		
	모형3	정서조절	.39	.33	.25	18.10***
		정서인식	.19	.18		
		동기화	.17	.15		
남자	모형1	동기화	.43	.42	.18	14.95***
	모형1	정서조절	.63	.49	.24	29.31***
여자	모형2	정서조절	.53	.41	.28	17.85***
		정서인식	.23	.21		

*** $p < .001$

표 5. 정서지능 평균과 하위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n=168$)	남자($n=71$)	여자($n=97$)	t
정서지능	3.77(.43)	3.69(.43)	3.82(.42)	-1.91
정서인식	4.14(.70)	4.05(.73)	4.21(.67)	-1.40
동기화	3.77(.64)	3.74(.64)	3.79(.65)	-.45
공감	3.69(.45)	3.63(.50)	3.73(.40)	-1.44*
정서조절	3.70(.59)	3.68(.65)	3.70(.54)	-.25

* $p < .05$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p=.057$, *n.s.*), 공감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대인관계,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정서지능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지능 하위요인과 대인관계 하위요인에서도 공감과 자율성 및 자아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정서능력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연지, 정종진, 2005; 심혜숙, 왕정희, 2001; 왕정희, 2000; 장정애, 1998; Brackett & Mayer, 2003; Brackett, Mayer, &

Warner, 2004; Campos, Mumme, Kermorian, & Campos, 1994; Mayer, Caruso, & Salovey, 1999; Rice, 1999; Rubin, 1999; Lopes, Salovey, & Straus, 2003; Trinidad & Johnson, 2001).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하여 정서지능은 3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동기화와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모두 동기화와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인식 변인은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대인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건강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지능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과 친구관계, 공감과 자율성 및 자아감을 제외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이는 정서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서능력과 삶의 만족 혹은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ay, Therrien, & Carroll, 2005; Furnham & Petrides, 2003).

그리고 정서지능은 삶의 만족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가지며, 삶의 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정서지능 변인은 정서조절이었으며 다음이 정서인식 그리고 동기화였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동기화 변인만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 그리고 정서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에서 남녀 대학생의 수행을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공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전통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요구 받으며(Bosacki & Astington, 1999), 더 많은 보살핌과 공감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Benenson, 1996). Baron-Cohen(2003)도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Baron-Cohen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와 마음 상태를 읽고 이에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인 공감하기 능력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공감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정서지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예: 스트레스를 다루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에 유리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Austin, Farrelly, Black, & Moore, 2007).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6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 수를 확대하고 연령범위도 확장하여 각 연령별로 광범위한 표집연구가 필요하다. 정서지능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적응 및 삶의 만족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서지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척도들의 신뢰도 문제이다.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인식 영역과 동기화 영역 그리고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영역 중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영역에서 문항내적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척도의 문항 중 일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서지능

의 하위영역 및 대인관계의 구성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보완하여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형식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특성상 불성실한 응답 및 반응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정서지능 검사들은 능력으로서의 지능개념과 성격특성으로서의 개념이 혼재되어 개발된 척도들이 대부분이며(김경희, 김경희, 1998; 문용린, 1997;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그 평가방식 또한 자기보고식 및 제3자 평정방식 등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을 성격특성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능력으로 보고, 능력으로서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검사 방식의 정서지능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수행검사 방식의 정서지능검사인 MSCEIT(Mayer, & Caruso, & Salovey, 2002)이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지 않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정서지능이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방식의 검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정서지능의 개발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다. 정서지능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및 부적응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Austin, Farrelly, Black과 Moore(2007)는 정서지능과 마키아벨리아니즘(Machiavellianism; Mach) 및 정서적 조종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마키아벨리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은 있지만 공감을 하지 못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볼 때, 마키아벨리언 혹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가해자 집단에 게 정서능력(예; 정서이해, 공감)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서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로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에 나타난 정서를 읽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송인혜, 김혜리, 조경자, 이수미, 2008; 조경자, 박수진, 송인혜, 김혜리, 2007). 우리는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 억양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를 파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서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지능의 하위척도 중 정서인식 척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추후연구를 통하여 정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희, 김경희 (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 34.
- 김선옥 (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분석.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지, 정종진. (2005).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논총*, 26(1), 99-121.
- 문선모 (1980).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논문집*, 19, 195-120.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류진숙, 현은민. (2006).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209-221.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 성태제 (2008).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송인혜, 김혜리, 조경자, 이수미 (2008).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 능력의 성인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63-80.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양옥경 (1996).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 157-198.
- 왕정희 (2000).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애 (1998).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경자, 박수진, 송인혜, 김혜리 (2007). 정서상태와 얼굴표정간의 연결능력의 발달. *감성과학* 10(1), 127-138.
- Austin, E. J., Farrelly, D., Black, C., & Moore. H. (2007). Emotional intelligence, machiavellianism and emotional manipulation: Does EI have a dark si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2, pp.179-189.
- Austin, E. J., (2005).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pp.403-414.
- Bar-On, T. (1997).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Technical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Brackett, M. A., and Mayer, J. D. (2003). Convergent, discriminant, and incremental validity of competing measu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9, pp.1147-1158.
- Brackett, M. A., Mayer, J. D., and Warner, R. M.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relation to everyda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6, pp.1387-1420.
- Baron-Cohen, S. (2003). *The essential difference: The truth about the male and female brain*. Oxford: Basic Books.
- Benenson, J. F. (1996).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emnt of relationships. In G. Noam & K. Fischer (Eds.), *Development and vulnerability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Bosacki, S., & Astington, J. W. (1999). Theory of mind in preadolescence: Relations between

- social 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8, 237-255.
- Campos, J., Mumme, D., Kermoian, R., and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 (Ed.), *The development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9, pp.284-303.
- Ciarrochi, J., Forgas, J. P., & Mayer, J. D. (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Psychology Press.
- Day, A. L., Therrien, D. L., and Carroll, S. A. (2005). Predicting Psychological Health: Assess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beyond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daily hassl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9, pp.519-536.
- Furnham, A., Petrides, K. V. (2003).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1 No.8, pp.815-824.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Lopes, P. N., Salovey, P., and Straus, R. (2003).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5, pp.641-658.
- Mayer, J. D., Caruso, D. R., and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 27, pp.267-298.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2002).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SCEIT): Use's manual*. Toronto, Ontario: Multi-Health Systems, Inc.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Quarterly*, Vol. 23, pp.29-44.
- Rice, C. L. (1999). A quantitative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team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
- Rubin, M. M. (1999).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role in mitigating aggression: a correl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ggression in urban adolesc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Immaculata College, Immaculata, Pennsylvania.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r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alovey, P., and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185-211.
- Salovey, P. (2001). Applied emotional intelligence: Regulating emotions to become healthy, wealthy, and wise. In J. Ciarrochi, J. P. Forgas, and J. D. Mayer (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scientific inquiry* (pp.168-184). New York: Psychology.

-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and Lopes, P. N. (2001).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mental abilities with the MSCEI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 Washington DV: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lein, S., Guernsey, B. G.,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In B. 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pp.349-354. Jossey- Bass, San Francisco.
- Schutte, N. S., Malouff, J. M., Bobik, C., Coston, T. D., Greeson, C., Jedlicka, C., Rhodes, E., & Wendorf, G.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1, No. 4, pp.523-536.
- Trinidad, D. R., and Johnson, C. A.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arly adolescent tobacco and alcohol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2, pp.95-105.
- 1 차원고접수 : 2009. 05. 25.
수정원고접수 : 2009. 09. 03.
최종게재결정 : 2009. 09. 04.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Yi, Su-Mi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

Cho, Kyung-Ja

Student Counseling Center
Pohang Uni. of Science & Technology

Ghim, Hei-Rhee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up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68 undergraduate students. The instruments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scale.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intellig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motivation and emotional management predic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rd, management of one's emotional status, emotional awareness and motivation predicted life satisfaction. Fourth, male and female students did not differ in their scores in terms of emotional intelligent, with the exception of empathy.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